



샬롬~, 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는 노원성진교회 최지훈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빌며 저희 소식 전해드립니다.

【반석교회 교육관 완공】

반석교회 본당을 건축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 정도쯤이야 그냥 한다’고 장담하면서 시작했던 일이 예상을 깨고 40주나 걸렸습니다. 단 한순간도 쉽지 않았고,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캄보디아-태국 전쟁도 지나오고, 치솟는 환율로 어려움도 겪으며 어찌 지나왔나 싶게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결국 완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육관 건축을 위해 귀한 헌금으로, 간절한 기도로 함께 해주신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교육관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아직은 미약하나마 ‘사랑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니 전도사 신대원 졸업】

신학대학교 4년, 신대원 2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입학할 때 꼴찌로 들어가서 마침내 신대원에서 두각을 보이는 완니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짧지 않은 완니의 신학여정을 함께 해온 저희 부부에게도 완니의 졸업식은 참으로 은혜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동안 완니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목사안수’라는 2차 관문이 남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립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서기까지 계속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만찬】

동남아시아 카레와 바게뜨 빵 그리고 음료수, '만찬'이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부부가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은 만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유선교사가 제자반 아이들 위주로 식사를 준비했는데, 언제부턴가 모든 교인이 함께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계획해오다 드디어 예수교회, 반석교회 교인들이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유선교사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벌써 다음 달 메뉴를 생각하게 됩니다. 채우시는 오병이여의 기적을 위해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전도가 즐겁다】

완니 전도사의 '리더십 훈련' 차원에서 소그룹 티칭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방학마다 전도여행을 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를 가르치고 실습을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몇 주간 예배 후에 점심을 먹고 전도교육을 받고 지난 주에는 전도실습을 나갔는데, 3개 조로 편성해서 인근 마을을 공략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금방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서 관계전도로 한 단계 더 들어가야겠다는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움직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기도제목】

- 1) 반석교회 교육관이 유용하게 잘 사용되도록
- 2) 8월달, 세대교교회 단기선교팀이 은혜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 3) 반석교회 사랑의학교가 유치원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 4) 완니 전도사와 스리노이 전도사가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 5) 완니 전도사가 석사과정(Th.M)을 놓고 준비중인데 잘 인도받도록
- 6) 전도운동이 꾸준히 펼쳐져서 주변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 7) 백선교사 유선교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 사역을 잘 감당해가도록



2026년 7월 10일

캄보디아에서 백정운 유효연 선교사 올림

